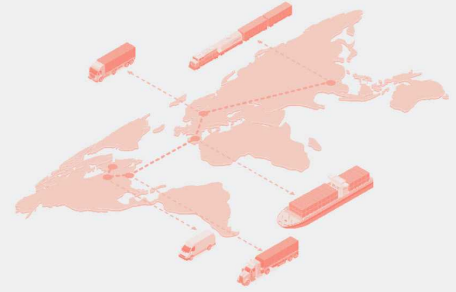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 기업의 기회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 기업의 기회



목 차

제1장 프라보워 정부 개요	6
제1절 대선 결과	6
제2절 행정부 및 입법부 체제 개관	8
제2장 프라보워 정부 주요 정책	12
제1절 경제 비전과 전략 프레임	12
제2절 분야별 핵심 정책	13
제3장 프라보워 정부 당면 과제	31
제4장 한국 기업을 위한 기회 요인	36
제1절 보건 의료	36
제2절 농업	44
제3절 전기차(EV)	51
제5장 결론 및 제언	56

요 약

1] 프라보워 정부 개요

- 프라보워 대통령,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당선
- **(행정부)** “메라 푸티” 내각,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부 구성
 - 전 정부 대비 14개 부처가 증가한 48개 부처로 구성, 그중 무상급식 등 대표 공약을 이행하는 국가영양청을 포함한 6개 부처를 신설
- **(입법부)** 88개의 원내정당, 前정부 당시 최대 여당이었던 투쟁민주당이 야당으로 변화

2] 프라보워 정부 주요 정책

- 프라보워 대통령은 조코위 前대통령의 **산업 정책** 기조를 계승하는 한편, 무상급식·공공주택 등 **직접 분배 정책**에 주력
- 전 정권의 다운스트림 중심 산업 정책 기조는 유지하는 반면, 인프라·국책사업 분야는 전 정권 대비 사업 범위 및 예산 일부 축소

구분	핵심 정책
1. 산업 정책	⇒ 계 속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및 고도화 계 속 Making Indonesia 4.0
2. 무역·투자 정책	⇒ 계 속 가 속 화 수출 주도 성장 신 규 국부펀드 다난타라를 통한 투자 유치
3. 사회정책	⇒ 신 규 무상급식을 비롯한 Quick Win Program 신 규 공공 주택 300만 채 공급 프로젝트
4. 경제안보 정책	⇒ 신 규 식량 자급자족 이니셔티브 신 규 에너지 자급자족 이니셔티브
5. 친환경 정책	⇒ 계 속 가 속 화 친환경 산업 육성 계 속 가 속 화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
6. 인프라 정책	⇒ 축 소 대형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축 소 신수도 이전

요 약

3] 프라보워 정부 당면 과제

- 신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 속 ▲재정건전성 확보와 ▲성장 모멘텀 유지, ▲통상 리스크 대응이라는 삼중 과제에 직면
 - (대내1)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상대적으로 낮은 세수비율을 개선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
 - (대내2) '24년부터 둔화되는 분기 경제성장률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요구되나, 재정적 제약 극복 필요
 - (대외) 美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인니 정부 對美 직접 협상을 중심으로 대비책 마련 中

<프라보워 신정부의 당면과제 및 대응방향>

대내	재정건전성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적자 비율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수 추가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 중앙, 지방정부 예산 효율화
	경제성장률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이후 경제성장률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경기부양책 발표 ■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대외	통상환경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대외 통상갈등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미 직접협상 등 진행 ■ ASEAN 차원의 공동대응

4] 한국 기업을 위한 기회 요인

- 신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의료기기 ▲스마트팜 ▲전기차(EV)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가 기대
 - 프라보워 정부의 복지 확대, 경제안보 강화, 제조업 육성 중심 정책 추진에 따라 3개 분야에서 정부-민간 수요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양국 간 기존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유망 진출 분야 및 세부 제품군을 선별하고, 기술이전·현지화 등 장기적 관점의 진출전략 마련 필요
 - 현지 여건과 수요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제1장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정부 개요

제1절 대선 결과

-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제 8대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
-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전체 38개 주 중 36개 주에서 1위를 차지, 득표율 58.6%를 기록하며 결선투표 없이 대통령으로 당선

<제 8대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결과>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Anies Baswedan	Muhaimin Iskandar	Prabowo Subianto	Gibran Rakabuming	Ganjar Pranowo	Mahfud MD
					
24.9%		당선 58.6%		16.5%	

자료: 현지 언론 종합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약력>



- 출생: 1951.10.17. (만 73세)
- 정당: 그린드라당
- 설명: 인도네시아의 군인 출신 정치인
- 정치 경력:
 - 2008: 그린드라당 창립
 - 2009: 투쟁민주당(PDI-P)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직에 출마했으나 낙선
 - 2014-2019: 그린드라당(Gerindra) 후보로 출마했으나 조코위 대통령에 밀려 낙선
 - 2019-2024: 국방부장관 재임

- 아니스와 간자르 캠프는 부정 선거를 이유로 선거결과에 대해 불복 선언,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현재는 제소건 기각
 - 현재가 '24.4월 낙선한 후보들의 제소건을 기각하면서 프라보워 당선 확정
-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의 주 요인은 조코위(Joko Widodo) 대통령의 후광 및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
- 당시 80%대 지지율을 유지하던 조코위 대통령이 프라보워를 지지함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 지지층 상당 부분을 흡수
 -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이 프라보워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 조코위-프라보워 간 회동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프라보워 지지율 상승
 - * '23.10월 프라보워가 기브란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면서, 자바(Java)에서 1위를 달리던 여당 후보 간자르의 지지율이 68%에서 38%로 폭락. 현지 언론사들은 이를 "조코위 효과"(Jokowi effect)로 명명
- 프라보워는 또한 강성 이미지 탈피를 위해 틱톡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 친근하고 포용적인 이미지로 리브랜딩하며 젊은 층을 공략
 - 인니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40대 미만의 젊은 층이며,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60.5%가 프라보워를 지지
- 프라보워 대통령은 '24.10월 자카르타에서 취임식 진행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식>



자료: 인도네시아 Antar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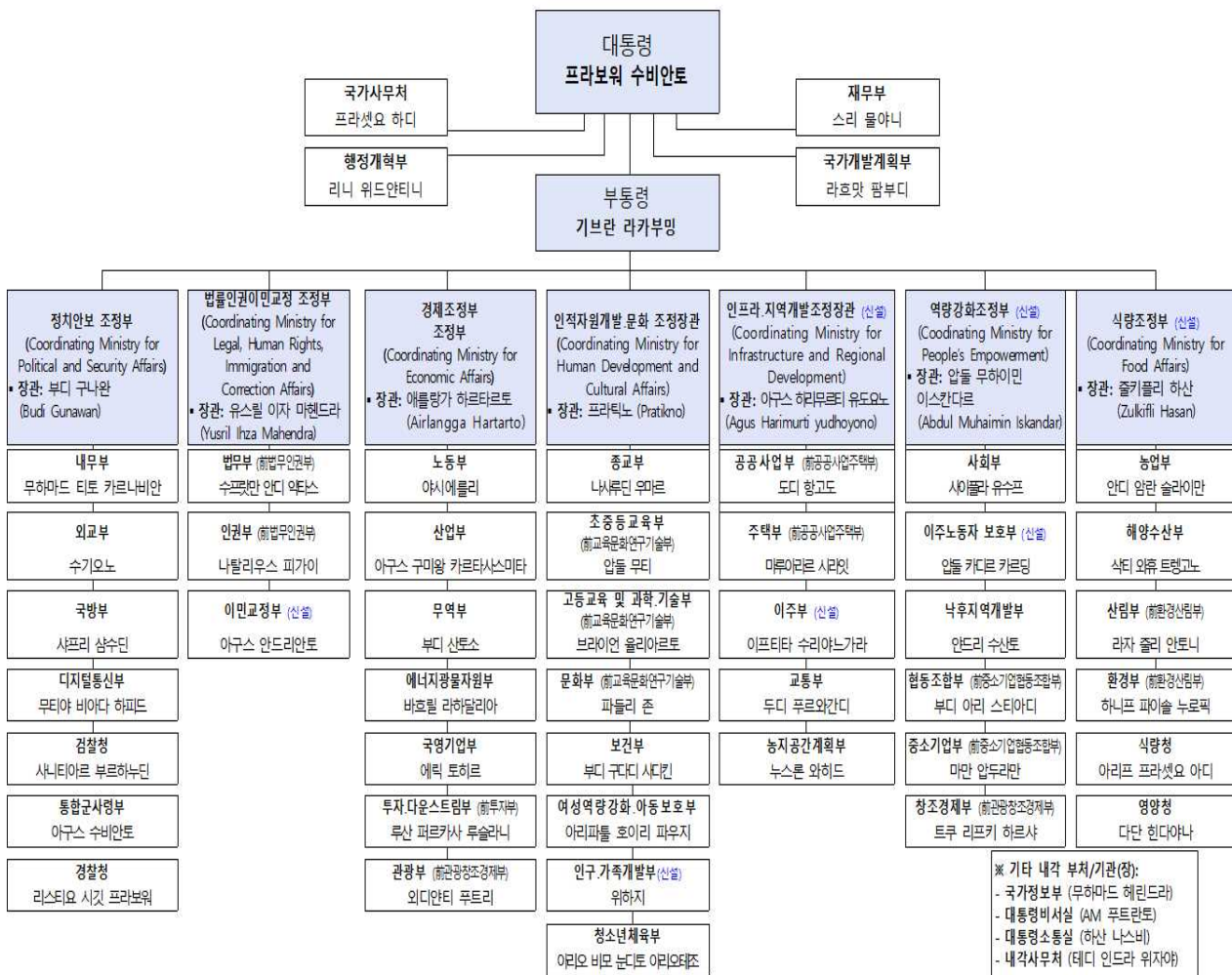
제2절 프라보워 내각의 新행정부 및 입법부 체제 개관

□ (행정부) 역대 최대 규모의 내각 및 부처 조직 개편

○ “메라 푸티(Kabinet Merah Putih, 적백 내각)”로 명명된 프라보워 내각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부 구성

- 행정부는 총 48개 부처(7개의 조정부, 41개의 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임 조코위 정부의 34개 부처 대비 14개 부처가 증가한 수준
- 장관과 정부 기관장은 총 109명으로 역대 최다이며, 장관은 48명으로 조코위 정부 당시 34명보다 14명 증가

<프라보워 메라 푸티 내각도>



자료: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부처)** 재무부, 행정개혁부, 국가사무처, 국가개발계획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편성
 - 재무부와 행정개혁부의 역할이 포괄적인 점을 감안, 필요에 따라 조정 회의에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간소화
- 신정부는 무상급식 등 대표 공약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6개의 신규 조직을 신설

<신규 신설 조직>

조직명	주요 내용
국가경제위원회 (National Economic Counc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설립되었으나, 1년만에 해산. 이후 프라보워 정부 출범과 함께 재설립되었음 - 루훗 빠자이탄 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대통령 직속 경제 싱크탱크로 기능
대통령 특별자문·특사·전문보좌진 (Advisors, Special Conveys, Specialized Staff to the Presid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특별자문: 자문기구로 부처 관할 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제시 - 대통령 특사: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되며,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협상 수행 - 전문보좌진: 부처 간 정책 연계와 운영을 실무 차원에서 조정
국가영양청 (National Nutrition Ag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을 주도하며, 기존 국가식량청의 식량 및 영양 담당 기능을 이관 받음 - 아동 영양관리 및 급식 정책 실행을 총괄
BPI 다난타라 (BPI Dananta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기업의 투자성과를 강화하고,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과 유사한 자산운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한 국부펀드
개발감독 및 특별조사청 (Development Control and Special Investigation Ag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개발 프로그램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기구로 신설됨 -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비효율을 방지하는 임무 수행
빈곤퇴치 촉진청 (Poverty Reduction Accerleration Ag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 전역의 빈곤 관련 정책을 총괄·연계하기 위한 기구로, 각 부처의 빈곤 관련 사업을 정렬하고 통합된 실행 전략을 수립

자료: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 (인선) 조코위 대통령 시절 내각 구성원의 절반을 재기용하여, 정책의 연속성 및 안정성 도모

<프라보위 행정부 주요 장관 인선>

성명	사진	직위	비고
Sri Mulayni		재무부 장관(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편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운용 총괄 - 인니의 복잡한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 '08년 세계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인니 경제를 큰 불상사 없이 이끌어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Bahlil Lahadalia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운스트림 정책 실무책임자 및 광물산업 투자 유치 주역 - 에너지 보조금 축소와 규제 개편을 통한 재생에너지 투자 촉진 강조 - 前투자부 장관
Agus Gumiwang		산업부 장관(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KDN 정책과 전자제품 수입 제한을 총괄, 국내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가스 산업 관련 규정 개정 추진
Erick Thohir		국영기업부 장관(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기업(SOE) 개혁의 책임자이자 국부펀드(다난타라) 감독 - 주요 산업·인프라 분야 국영기업 경영 조정 및 구조조정 주도
Rosan Roeslani		투자·다운스트림부 (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투자환경 조정 전담 - OSS 시스템 고도화, 민간투자 유치 제도 설계 중심

자료: 언론사 종합

□ (입법부) '24년 총선 결과, 8개의 정당이 국민대표회의 의석을 배정받음

* 인도네시아 국민대표회의(하원)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 예산권, 행정부 견제 기능을 수행, 우리나라의 국회 격에 해당

- 대선과 함께 치러진 '24년 총선 결과, 의원 580명이 선출되었음
- 신정부 부처 수가 확대되면서 의회는 두 개의 신규* 상임위원회(Commision)를 신설, 총 13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됨

* CommissionXII: 에너지/광물자원 담당 | CommisionXIII: 법률, 개혁, 인권, 이민 담당

- 前여당인 투쟁민주당(PDI-P)는 최대 의석수를 차지하는 야당으로 변화, 8개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프라보워 연정에 참여하지 않음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 수>

로고	당명	득표율(%)	의석수
	투쟁민주당 (PDI-P)	18.96	110
	골카르당 (Golkar)	17.59	102
	그린그리당 (Gerindra)	14.83	86
	나스데미당 (Nasdem)	11.90	69
	국민계몽당 (PKB)	11.72	68
	복지정의당 (PKS)	9.14	53
	국민수권당 (PAN)	8.28	48
	민주당 (Demokrat)	7.59	44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제2장 프라보워 정부의 주요 정책

제1절 프라보워 정부의 정책 프레임

- 프라보워 정부의 정책 방향은 **2045 인도네시아 선진국 도약 비전 (Visi Indonesia Emas 2045)의** 기초를 바탕으로 설정
 - 2045 비전은 인니 정부가 독립 100주년을 맞아 제시한 국가 발전 로드맵으로, 장기 정책 방향의 최상위 기준점 역할을 수행
- 프라보워 정부는 '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2045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 바탕으로 산업정책 수립
 - 인구 골든타임을 활용하여 제조업 경쟁력 확보, 자원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고부가가치화 하여 중진국 함정을 탈피하고자 함

<2045 비전 5대 목표>

연번	목표	정량목표		
		지표	2025년	2045년
1	선진국 수준의 1인당 소득	1인당 GNI(USD)	5,500	30,300
		해양분야 GDP 기여율(%)	8.1	15.0
		제조업 GDP 기여율(%)	20.8	28.0
2	빈곤율 및 경제 불균형 해소	빈곤율	7.0-8.0	0.5-0.8
		지니 계수	0.38	0.29-0.32
		인니동부지역내 총생산(%)	21.4	28.5
3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과 영향력 확대	글로벌 파워지수 순위 (Global Power Index)	34	15
4	인적자원 경쟁력 향상	인적자원지수	0.56	0.73
5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배출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 저감(%)	38.6	93.5

자료: 인도네시아 장기개발계획(RPJPN 2025-2045)

제2절 분야별 핵심 정책

1. 산업 정책

- (목표) 프라보워 정부의 산업정책은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의 강점을 활용하면서,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확대를 이루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제조업 GDP 기여도를 올리는 것을 목표

<인도네시아 제조업 GDP 기여도 목표>

2024	2029(e)	2045(e)
18.9%	21.9%	28.9%

- (정책①)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 前정권의 다운스트림 정책 계승·확대
- 인니는 천연자원 부국으로 니켈, 주석, 보크사이트, 석탄 등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으며,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

<인니 주요 광물 부존 현황>

인도네시아 주요 광물					주요 광물 사용처		
광물	기공품	사용처					
석탄 매장량 348억톤 (7위)	니켈 매장량 5,500만톤 (1위)	주석 매장량 80만톤 (2위)	보크사이트 매장량 280만톤 (4위)	기타 구리, 망고일, 금 등	황산니켈, 페로니켈	전기차 배터리, 가전제품	
					알루미늄, 튜발루민	비행기 동체, 전기차 차체	
					인듐 주석 산화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금합금	반도체, 전자부품	

자료: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5 및 과거 자료

- 다운스트림 정책은 단순 원자재 수출이 아닌, 이를 가공·정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조코위 前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핵심 산업정책
 - 광물 수출 금지를 통해 제련소 건설을 유도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여 자국 중심의 지역가치사슬(RVC) 구축 모색

<광물 수출 금지 정책 현황>

- ◆ 주식('02년 수출금지), 니켈('20년 수출금지), 보크사이트('23.6월 수출금지) 등
- ◆ 구리 정광 '25.9월 限 수출금지 정책 유예

- 조코위 前정부는 광물 수출 금지를 통해 ⁽¹⁾전기차 배터리 산업육성 기반 마련, ⁽²⁾FDI 유입 확대 ⁽³⁾중간 제품 수출 증가 성과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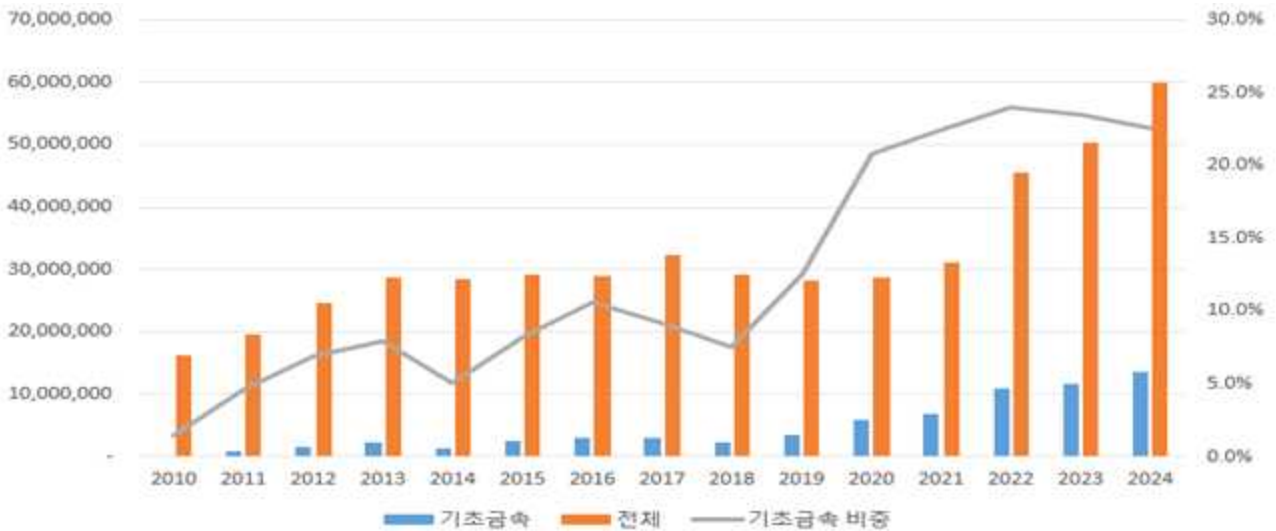
<광물 수출 금지 정책 주요 성과>

구분	주요 내용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 니켈 수출 금지를 계기로 제련·정제를 거쳐 배터리·전기차 등 다운스트림 산업으로 저변 확장
FDI 유입 확대	- '24년 FDI 600억 달러로 '20년 대비 127% 증가 - 기초금속 '24년 135억 달러로 '20년 대비 109%증가
중간 제품 수출 증가	- 니켈 및 제품(Hs 75) 수출액 '20년 8억 달러에서 '24년 80억 달러로 10배 증가
일자리 창출	- 니켈 제련소 2개('16년) → 44개('24.上)

<주요 FDI 사례>

- ◆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한): Karawang 배터리셀 공장 완공('24, 11억 달러)
- ◆ 프리포트 맥모란(미): 동부 자바 세계 최대 구리 제련소 완공('24, 30억 달러)
- ◆ 포드(미) & 화유코발트(중) & 발레(브): 니켈 처리시설 투자 발표('23, 45억 달러)
- ◆ 포스코 홀딩스(한): 니켈 제련공장 착공('23, 4억 달러)

<인도네시아 FDI 추이>
(단위: 천 달러, %)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

- 프라보워 정부는 前정부의 다운스트림 정책을 계승하면서 이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조율 중
 - 정부는 '24.11월 다운스트림 집중 육성 품목을 기존 21개에서 28개로 확대
 - '25.2월 출범한 국부펀드 다난타라*(Danantara)를 활용,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등 국가 우선순위 사업 투자의 마중물로 활용할 예정
- * 다난타라는 싱가포르 테마섹과 같은 국부펀드로, 초기 자본금은 200억 달러이며, 향후 9,800억 달러 운용 예정(세계 4위 수준)

<다운스트림 집중 육성 품목>

기존 (21개 품목)	석탄, 니켈, 주석, 구리, 보크사이트, 철강, 금/은, 아스팔트, 석유, 가스, 팜유, 코코넛, 고무, 바이오연료, 목재, 소나무 수지(송진), 새우, 생선(참치, 가다랑어, 고등어), 계, 해초, 소금
신규 (7개 품목 추가)	실리카, 망간니즈, 코발트, 희토류 원소, 티라피아, 카카오, 육두구

자료: 언론사 종합

□ (정책②) 제조업 육성 위한 “메이킹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 추진

○ 인니 정부는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7대 제조업 설정

- 7대 산업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 '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으로 진입 목표 설정

<인도네시아 7대 제조업 경쟁력 강화>

구분	중점 분야	세부계획
첨단 기술	자동차	■ 전기차 생태계 조성, 원자재·핵심부품 자급화, 현지 생산 유도
	의료기기	■ 의료기기 현지생산, 기술이전, 병원 및 의료특구 신설
	제약	■ 원료 의약품, 화공약품 현지생산 및 기술이전 유도
	화학	■ 바이오연료/플라스틱 등 차세대 석유화학제품 생산
	전자	■ 반도체 등 고부가 전자부품 생산능력 배양, 新기술 이전 활성화
노동 집약	식음료	■ 자동계측, 모니터링 기술 등을 수출용 농산물 가공능력 확보
	섬유·봉제	■ 고부가가치 섬유 생산, 해외 기능성 의류 수요 대응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편집

2. 무역·투자 정책

- 정부는 임기 내 경제성장률 연 8% 달성을 목표로 설정, **수출주도 성장 강조**
- 인도네시아는 GDP 대비 교역 비중이 36%에 불과한 내수 중심 경제로, 수출주도형 성장 전환의 잠재력이 큼

<ASEAN 주요국 GDP 대비 교역 비중>



자료: GTA, 베트남 상무부

- 인니 정부는 '29년까지 수출 목표를 4,029억 달러로 설정했으며, 이는 '24년 수출액(2,647억 달러) 대비 52% 높은 수준
 -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5년 7.1%, '29년까지 연평균 9.6% 성장이 필요
 - * '24년 인도네시아 수출은 전년대비 2.3% 증가 (2,588억 달러 → 2,647억 달러)
- 정부 중기개발계획(RPJMN 2025-2029)은 목표 달성 및 교역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수출 구조 고도화 ▲수출 대상국 확대 강조
 - **(수출구조 고도화)**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통해 중간재 수출을 늘리고,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수출 구조 고도화* 전략 추진
 - * 인니 수출 품목은 원자재('24년 광물 연료 및 동·식물성 지방이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
 - **(교역국가 확대)**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완화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유럽과의 CEPA 협정 체결 가속화, BRICS 가입 추진

- 수출주도 성장을 유도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는 추세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식약청 인증(BPOM), 의료기기등록(ALKES), 할랄인증 의무화 추진으로 자국 산업 보호 노력
- 국산부품사용요건(TKDN), 수입승인제도(PI), 선적 전 검사(LS)를 적극 운용, 중간재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인니 산 부품 사용을 강제

<인도네시아 주요 인증>

구분	SNI	BPOM	ALKES / PKRT	Halal
인증마크				
허가기관	Bureau of Standard Nasional (BSN, 인니 국가 표준기구)	Badan POM (BPOM, 인니 식약청)	Kementerian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인니 보건부)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BPJPH, 인니 할랄보장청)
성격	의무	의무	의무	계도기간 후 단계적 의무화 (식음료 '24.10월, 의약품·화장품 '26.10월 부터)* *외국기업 2년 유예
주요 적용제품	철강, 전자기기, 공산품 등 (205개('19)→238개('20) 품목으로 지속 확대중)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ALKES) 건강보조기구(PKRT)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 전반
신청주체	제품 수입업체	제품별 유통허가(PSB) 보유 제품 수입업체	의료기기 유통허가(IPAK) 보유 제품 수입업체	제조사
획득 소요기간	2개월~1년	2개월~2년	2개월~1년	21~41일
획득 소요비용 (제품 당)	USD 10,000~20,000 (실사비용 포함)	USD 7000~5,000	USD 1,000~5,000	USD 10,000~20,000 (향후 재무부 법령을 통해 개정 비용 공고 예정)
유효기간	4년	3년(화장품), 5년(일반)	5년	4년(2년 단위 감사)
타국 인증 상호인정 여부	미인정	미인정	미인정	인정 ('23.11월부)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SOE 자산 기반, 국부펀드 투자 활성화 전략

- 다난타라(Danantara)는 인도네시아의 국부펀드로, '25.2월 국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영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식 출범
- 다난타라는 정부의 예산 효율화 조치로 확보한 금액과 국영 기업 지분 이전으로 마련된 자산을 운용 예정, 운용 규모는 9,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2025년 정부규정 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정부는 보유 중인 52개 공기업(SOE)의 B형·C형 지분을 국영기업인 PT Biro Klasifikasi Indonesia(BKI)에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이후 BKI의 지분 99%를 다난타라에 이전
 - Pertamina, PLN 등의 대형 공기업 지분이 포함되며, 총 지분가치는 약 1,028조 루피아(630억 달러)에 달함
- * SOE 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익도 주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
- 다난타라는 해외 투자자와 파트너십을 맺어 5개 분야 전략 산업에 투자 예정

<다난타라 주요 투자 분야>

투자 분야	세부 내용
광물 개발 및 가공	니켈, 보크사이트, 구리 등의 광물 채굴 및 정·제련 산업
인공지능(AI)	AI 기술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정유 산업	석유 정제 및 석유화학 분야 투자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식품 산업	식품 생산 및 가공 분야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다난타라는 대규모 공공자산 운용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전략 산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3. 사회 정책

- 빈곤 퇴치와 질병 예방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공공복지 지출을 확대
 -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본 생활 기반을 개선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
 - 감염병 예방, 위생 환경 개선 등 보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국민 건강 수준 향상 추진
 - 빈곤층을 중심으로 민간 가처분소득 보전,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내수 진작 효과도 병행 추구
 - 또한 정부는 예산 효율화로 절감된 예산을 국민 체감도가 높은 퀵 윈 프로그램(Quick Win Program) 재원으로 우선 투입 예정

<신정부 퀵 윈 프로그램>
(단위: 억 달러)

사업명	예산	주요 내용
무상급식 (Nutritious Meal Program)	103	임산부, 수유모, 유아, 유치원생, 초·중·고교생 등 전 학령 대상 영양식 제공
학교 개보수 (School Renovation)	12	교실, 기자재, 화장실 등을 포함한 학교 시설 전면 개보수(22,000개)
지역·마을 단위 식량 저장고 구축 사업 (National, Region, and Village Food Barn)	10	- 집약 농지 확대 80,000헥타르 - 논 조성 등 신규 농지 확장 150,000헥타르
결핵(TBC) 퇴치 프로그램 (Eradication of TBC)	5	전국적 결핵 근절을 위한 집중적 대응
건강검진 프로그램 (Health Screening Program)	2	총 5,220만 명 대상 무료 건강검진 (혈압, 혈당, 대사질환 엑스레이 등 포함)
통합형 선도학교 설립 (Integrated Leading School)	1.2	4개 지역에 선도학교 구축
고품질 병원 건설 (Construction of High-Quality Hospital)	1	지역 수준의 D급 병원을 C급 병원으로 업그레이드(인프라 및 장비 개선 포함)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 (무상급식) 신정부는 주요 정책으로 무상급식 혜택을 선언, 예산 마련에 주력
 - 무상급식 전면 시행 시, 연간 소요예산은 약 160억 달러로 추산
 - 이에 '25.3월 인니 재무부는 2025년 무상급식 예산을 기존 71조 루피아 (43억 달러)에서 171조 루피아(103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
 - '25.3월 약 200만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9월부터 증액된 예산을 본격 투입할 계획임
- 이외에도 공공주택보급 프로그램, 민생안정 정책 등을 적극 추진 중

정책 명	주요 내용
1. 공공주택보급	- 저소득층을 위해 연간 300만 채(도시 100만 채, 농촌 200만 채) 신규 주택 공급 목표
2. 민생안정 정책	- 25년 민간 구매력 보전을 위해 15개 경제 지원 정책 발표 - 중·저소득층을 포함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식품, 전기 요금에 대한 세제 감면 및 보조금 정책을 시행

<정부 주도 복지 정책>



무상급식 프로그램



건강검진 프로그램

자료: Koran Jakarta, Jakarta Post

4. 경제 안보 정책

- 프라보워 대통령은 식량·에너지 자급자족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언급, 경제주권 강화를 국가 전략으로 제시
-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정책 기조의 배경으로 작용
- 중기개발계획(2025~2029)과 국가전략사업(PSN)에도 해당 기조 반영
 - 신규 PSN 29개 중 20개(68%)가 식량·에너지 분야에 집중

<신정부 경제 안보 정책>



식량 보전 이니셔티브



에너지 자급자족

자료: 인니 농업부, Tempo

- **(식량)** 식량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가 식량보전' 이니셔티브 추진
- 신정부는 식량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구성요소로 간주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코자 함
 - 글로벌 식량 공급망 불안정, 주요 수입국의 수출제한,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악화 등을 배경으로 식량 주권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농업부는 주요 작물 생산 확대를 위한 ▲경작지 확대 ▲단위면적 생산성 향상 관련 세부 계획을 구축
 - **(경작지 확대)** 농경지가 부족한 지역에 신규 논 개척과 휴경지 활용 및 2모작 촉진으로 경작 면적을 늘려 생산량을 확대
 - **(생산성 개선)** 개량된 종자 보급, 비료/농기계 지원, 농업용수 공급 확충을 병행 추진
 - **(부처 간 협업)** 농업부와 공공사업부는 신규 관개 사업을 기획, 관개시설 확충을 통해 식량 증산 추진
- **(기대효과)** 무상급식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공공조달 수요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창출 전망
 - 정부는 중기적으로 옥수수, 콩, 사탕수수 등 자급 작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후 커피·코코아 등 수출 작물까지 포함할 계획
- **(에너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자급자족 정책 추진
 - **(배경)** '24년 정유·LPG 등 에너지 수입액은 406억 달러로 전체 인도네시아 수입의 17%를 차지, 무역수지 적자 유발
 - 정부는 인니가 보유한 천연자원을 활용,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
 -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해 ▲화석연료 생산, 정제 역량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 ▲바이오 에너지 활용 ▲폐기물 에너지화로 추진 중

<화석연료 생산, 정제 역량 강화>

구분	세부 내용
화석연료 생산	- 유휴 유정 재가동, 신규 유전 활용을 위한 탐사 확대
정제역량 강화	- 국내 정유 설비 증설 추진 - 발릭파판, 발롱안 정제소 현대화 추진

- **(재생에너지 확대)** 인도 정부는 '25.5월 전력수급계획(2025-2034) 발표, 총 69.5GW의 발전 용량 추가 계획

<발전 용량 추가 계획>

구분	신재생	화석연료	에너지
용량	42.6 GW(61%)	16.6 GW(24%)	10.3 GW(15%)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17.1 GW - 수력: 11.7 GW - 풍력: 7.2 GW - 지열: 5.2 GW - 바이오: 0.9 GW - 원자력: 0.5 G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 10.3 GW - 석탄: 6.3 G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터리: 6.0 GW - 양수발전: 4.3 GW

자료: 인도네시아 전력수급계획(RUPTL)

- **(바이오에너지 활용)** 세계 1위 팜유 생산국의 강점을 활용, 바이오디젤 B40을 도입하여 디젤 수입 축소 추진. 카사바, 옥수수 등 자국 농산물을 활용해 바이오에탄올 도입하여 휘발유 대체 추진
 - **(폐기물 에너지화)** 정부는 도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기물 에너지화(Waste-to-Energy) 주목, 시범사업 확대
- * 12개 도시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이며, 30개 도시로 확대 추진

5. 친환경 정책

-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로드맵(NDC) 개정안 발표, 탄소중립을 위한 청사진 제시
 - 자체 감축(1안)과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감축(2안)으로 목표 세분화

<인도네시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감축 로드맵(NDC)>

온실가스 감축목표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주요 내용
2030	① BAU 대비 2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BAU는 2,869 백만 톤 • (無조건) BAU 대비 29.0%인 834 백만 톤 감소 추진
	② BAU 대비 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 BAU 대비 41.20%인 1,185 백만 톤 감소 추진

자료: Updat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Republic of Indonesia('21.10)

- 조코위 前정부는 2060년 탄소중립을 공식 목표화하고, 이를 위한 감축 전략 수립과 국제재원 연계 기반을 마련
 - 국가 에너지 일반계획(REUN)을 수립, 2050년까지의 에너지 믹스 목표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17)
 -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까지 23%, 2050년까지 31%로 확대 목표
 - 바이오연료(B30), EV·배터리 산업 등 저탄소 전환산업 육성 병행
 - '22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JETP(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에 공식 가입, 석탄 감축·신재생 확대 위한 재정 기반 확보
 - * 향후 3-5년 동안 공공·민간으로부터 200억 달러의 투자금을 모금하기로 함
- 프라보워 정부는 ▲에너지 전환 ▲탄소 감축 ▲친환경 산업 육성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추구하고 있으며, 국제 기후 목표 이행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해 이를 가속화할 계획

-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을 양측으로 추진
 - 정부는 '25.5월 전력수급계획(2025-2034) 발표, 에너지 믹스 비중 결정
 - 정부는 원자력 발전 도입 추진.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 이행기구(NEPIO) 설립 추진
 - * 초기 단계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중심 도입 검토 중
 - 바이오디젤(B50) 확대와 팜유·사탕수수 기반 바이오에너지 공급 추진, 산림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이용 방식 모색 중
- 탄소세·배출권 등 가격기반 제도 도입과 함께,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및 산림 복원 중심의 감축 수단 다변화 추진
- 친환경 산업은 배터리·전기차 중심에서 수소·폐기물·바이오소재 등으로 다각
 - 글로벌 전기차 허브 도약을 목표로 제도 정비와 함께, 세계 최대 니켈 매장량을 기반으로 투자 유치 확대 추진

<주요 투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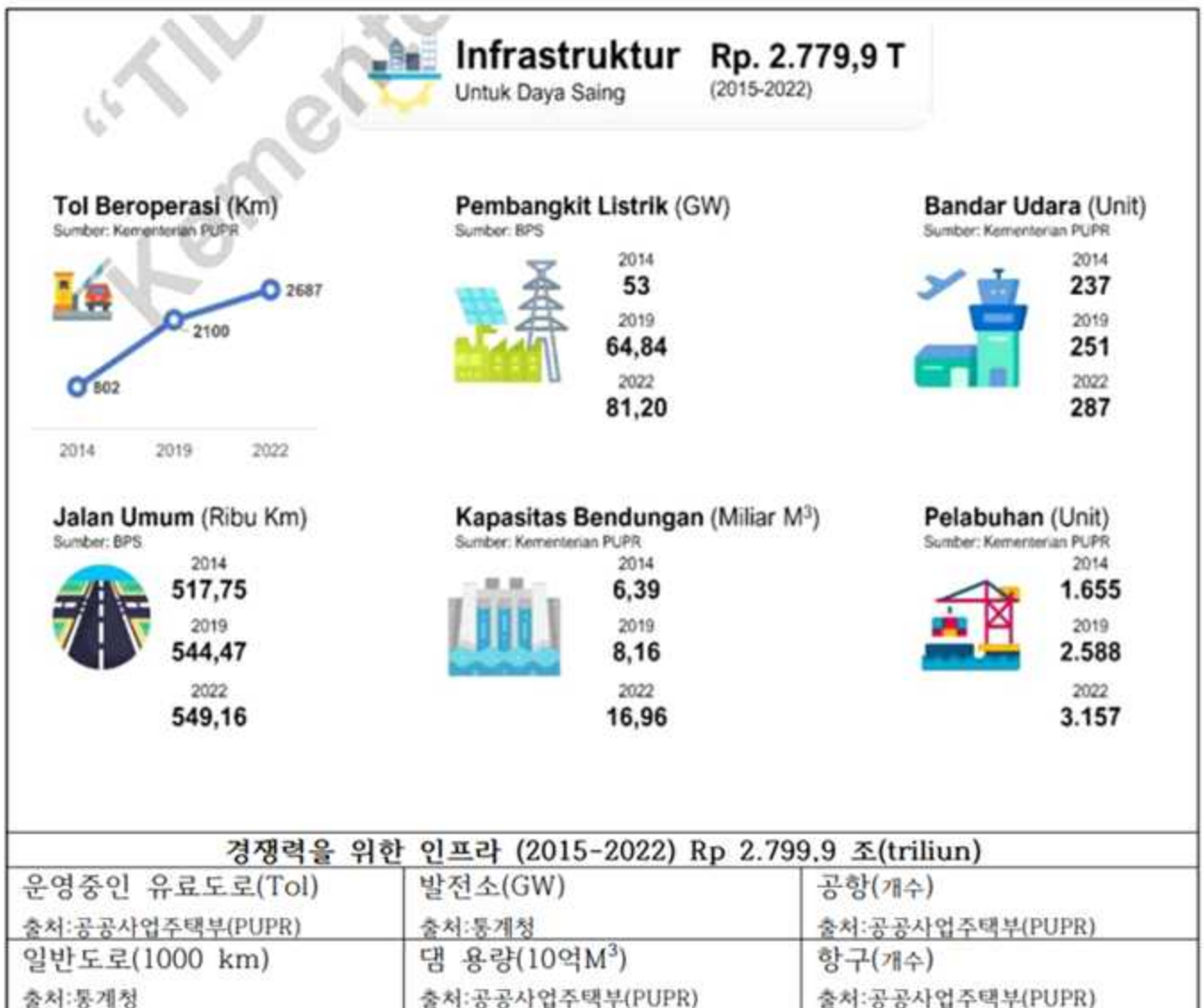
- ◆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한): Karawang 배터리셀 공장 11억 달러
- ◆ 도요타(일): 전기차 생산 18억 달러
- ◆ 미쓰비시(일): 배터리 분야 6.7억 달러 투자
- ◆ CATL(중): 니켈 광산, 배터리 생산 59억 달러 투자

- 폐기물 소각발전(WtE), 생분해 플라스틱, 수소·암모니아 연료 등으로 신산업을 다각화하고, 관련 인프라 조성 병행

6. 인프라 정책

- 조코위 前정부는 경제발전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낙후된 인프라를 지목, 인프라 확충을 국가 핵심 과제로 집중 추진
- 조코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도로·항만·공항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과 물류 연결성 개선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 달성

<조코위 정부 인프라 개발 성과>



자료: 국가장기개발계획

- 조코위 정부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수도(Ibu Kota Nusantara, IKN) 이전 프로젝트를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
 - 수도 이전을 통해 자바섬 인구 과밀(56%) 및 경제력 집중(60%) 해소를 통한 균형 발전 도모
 -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 구축
 - 총 340억 달러(재원: 정부 20%, 민간 80%)를 투입하여 '지속 가능한 스마트 열대우림 탄소중립 도시' 개발
- 인프라 사업은 여전히 경제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간주되나, ▲관련 예산 삭감 ▲국가전략프로젝트(PSN) 축소를 고려할 때 인프라 중심 성장 전략의 정책 우선순위가 조정될 가능성 있음
- 프라보워 대통령은 '25.1월 2025년 대통령령 제1호 발표, 중앙·지방정부 예산 효율화 추진
 - 재무부는 전체 정부 예산의 8%에 해당하는 186억 달러를 Quick Win Program으로 재조정
 - * 중앙정부 예산 155억 달러, 지방정부 예산 31억 달러
 - 예산 효율화 조치는 직원 급여나 사회 지원금이 아닌 물품 조달 등 비필수 지출을 중심으로 시행
 - 금번 예산 조정으로 공공사업부 예산이 약 70% 삭감, 도로·교량 등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의 전면 재조정 또는 중단 가능성 높아짐

<주요 부처별 예산 삭감 현황>

(단위: 억 달러, %)

부처	조정 전	조정 후	삭감 비율
국방부 (Ministry of Defense)	102	85	16
경찰청 (National Police)	78	65	16
공공사업부 (Ministry of General Works)	72	22	70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65	52	19
고등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Research, Technology)	57	43	25
사회부 (Ministry of Social)	49	49	1
종교부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53	40	15
국가영양청 (National Nutrition Agency)	44	44	0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33	27	17
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ation)	19	8	58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18	12	34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 2025~2029년 국가전략프로젝트(PSN)로 총 77개 과제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조코위 정부 당시 지정된 228개 과제에 비해 크게 축소된 규모
 - 총 77개 PSN 중 48개는 전 정부로부터 이어지는 계속사업이며, 신규 사업은 29개에 불과
 - 공항, 철도, 기술 분야를 포함한 일부 국가전략프로젝트(PSN)는 前정부에서 추진되어왔으나, 現정부 들어 추진 중단
 - * 육상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2024년 경제조정부 장관령 제12호에 명시된 50개 PSN 과제 중 단 3개만이 유지됨
 - ** 무상급식 등 사회 인프라 신규 과제들이 포함되어 정책 우선순위 변화가 나타남
- 정부 예산을 우선적으로 복지정책에 활용함에 따라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정부의 재정 제약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신정부가 무상급식 프로그램과 식량 안보 강화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프라 프로젝트에 할당할 재정의 상대적 제약 전망
 - 이러한 제약 하에서 정부 사업들은 정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한 민관합작협력(PPP) 방식으로 발주될 것으로 보임

제3장 신정부 당면 과제

□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에 따른 조세 기반 확보와 재정건전성 유지

- 신정부의 직접 분배 정책은 상당한 재정 지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과제로 대두됨
- 프라보워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국가 채무를 활용한 확장적 재정 운용에 강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법정 한도(3%) 초과에 대한 현지 우려가 있었음

- '25년 정부 예산안의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2.5% 수준 결정, 적극적 지출 기조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과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확인

- 향후 정부는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불필요한 지출로 판단되는 항목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22년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12%로, 아-태 국가 평균인 19%와 OECD 평균 3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세수 확보를 위해 프라보워 정부는 '25년부터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12%로 인상하는 정책을 예고하였으나, 내부적인 반발로 결국 사치품 등 일부 품목에만 인상이 적용

- 정부는 LPG 보조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사회적 반발로 무산

* '24년 정부 에너지 보조금 지출은 249억 달러로, 정부 예산의 11.5%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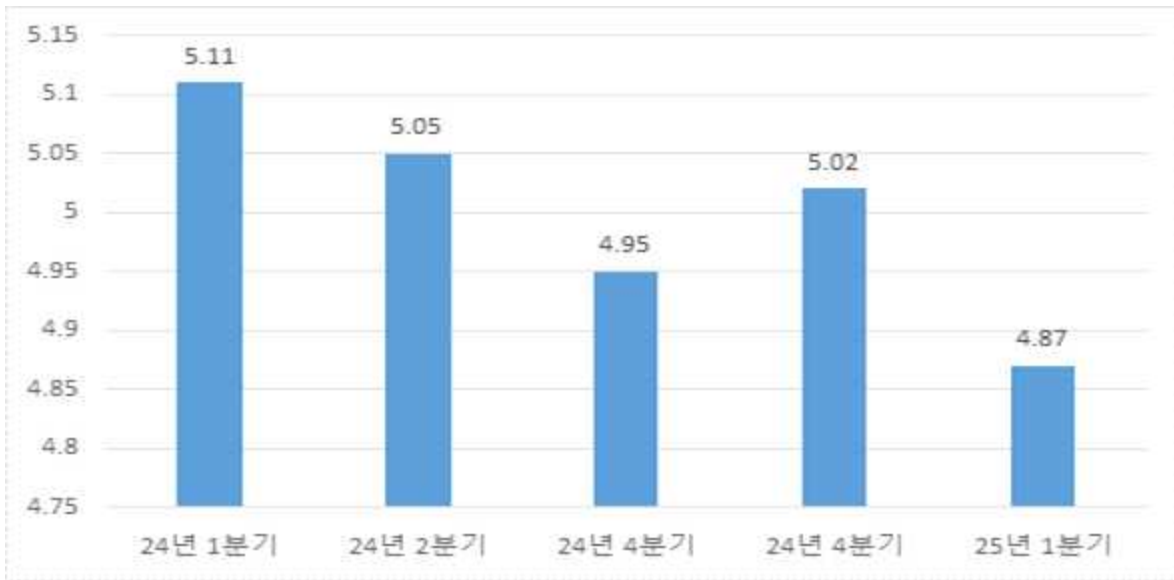
- 이외에도 인니 정부는 석탄 가격 지표인 기준석탄가격(HBA, Harga Batubara Acuan)을 기준으로 로열티율을 가격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적용, 시장가격 상승 시 세외수입(PNBP) 증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조화

-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5년 대통령령 제1호를 통해 중앙·지방정부 예산 효율화 추진, 정책 우선순위인 무상급식 등 복지 프로그램에 재원을 집중

□ **경제성장률 둔화 조짐에 따른 경제 부양 조치 필요**

- 인니 경제는 '22년 이후 5%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4년 1분기 이후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인도네시아 분기별 경제성장률>
(단위: %)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2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4.87%를 기록하며 '21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 주요 기관들은 ▲재정정책의 불확실성, ▲고금리로 인한 소비 및 투자 위축 등을 사유로 2025년 인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 * (OECD/6월) 4.9%→ 4.7%로 하향 조정, (IMF/4월) 5.1%→4.7%로 하향 조정
- 이에 인니 정부는 5%대 경제성장률을 위해 경기부양책 발표, 중앙은행 또한 가계 소비 촉진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단행
 - 인니 정부는 내수 진작 및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약 2조 700억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25.6~7월 2개월 간 시행

- 인니 중앙은행은 '25.5월 경제 성장을 강화하고 가계 소비 진작을 위해 기준금리를 5.75%에서 5.5%로 0.25%p 인하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교통비 할인	항공료, 열차운임 할인
톨게이트 할인	전국 톨게이트 통행료 20% 할인
전기요금 지원	약 7,930만 가구 대상, 전기요금 50% 할인
식량·사회지원	1,839만가구에 매달 20만루피아, 10kg 쌀 지원
임금 보조금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특히 초중고 교사 대상으로 월 30만 루피아
실업보험료 지원	노동집약산업 종사자 270만 명 대상 실업보험료 50% 지원

자료: 현지 언론사 종합

□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 대비책 마련

- 미국은 대규모·연례 반복적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상호관세로 수입을 규제
 - 모든 무역상대국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였으며, Annex I 리스트 국가(56개국)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 기본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며, 예외 품목은 Annex II*에 명시
-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과,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 적용 품목
- 인니에 대한 추가관세는 32%이며, 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국가들의 평균 추가관세는 36% 수준
 - ASEAN 국가들 중 對美 무역적자를 기록 중인 싱가포르만 기본관세(10%)가 부과
- 미국 정부는 발효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우선 적용하기로 발표('25.4월)

<ASEAN 국가별 추가관세>

(단위: %)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태국	인니	말련	브루나이	필리핀
추가 관세	49	48	46	45	37	32	24	24	18

자료: 언론사 종합

-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복대응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대미 직접협상을 진행
 - 인니 정부는 ▲ASEAN 차원의 공동 대응 ▲대미 직접 협상 ▲무역 파트너 다변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미국 고관세에 대응
- 인니 정부, 대미 직접협상을 통해 출구 모색 중.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및 자국 규제 완화 가능성 시사. 상호 관세 유예 종료일('25.7.3) 이전 협상 타결 목표

※ 인니 정부의 對미국 협상 관련 주요 내용

- 프라보워 대통령, 미국산 LPG·LNG·면섬유·밀 등 원자재 및 제품 수입 확대 의사 표명. 일부 수입쿼터제 및 Pertek 폐지 검토, TKDN 요건 일부 유연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가능성 언급('25.4.8)
- 경제조정부 장관, 무역·재무부 장관 등과 협상단 구성해 방미(4.16~21). TKDN 등 비관세 장벽 완화, 디지털결제 시스템 개방, 에너지 수입 확대 등 논의
- 인니 정부, 협상 카드로 미국산 원유·석유제품·LPG 등 에너지 수입액 100억 달러 확대 방안 제안
-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우대 품목 목록을 미국에 제공 예정('25.6.4)

※ (참고) 인도네시아-미국 교역구조

- 미국은 인니의 2위 교역대상국이며, '21년 이후 300억 달러 이상 교역액 기록
 - '24년 기준 미국은 인니의 2위 수출대상국, 4위 수입대상국
 - * 인니 수출·수입 1위국은 중국으로, '24년 교역액은 1,351억 달러(전체의 27%)
 - 인니는 미국의 15번째 무역수지 적자국이며, ASEAN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에 이어 4위를 기록

<인도네시아의 對미국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출	금액	186	257	282	232	263
	증가율	6%	38%	9%	-18%	13%
	순위	2위	2위	2위	2위	2위
수입	금액	85	112	116	112	119
	증가율	-7%	31%	3%	-3%	6%
	순위	4위	4위	5위	4위	4위
수지		101	145	166	120	144

자료: GTA

- 주요 수출품목은 제조업 제품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에너지 및 농산물
 - 주요 수출 품목은 기타 전자기기*, 팜유, 의류, 신발, 타이어 등 제조업 제품
 - '21년까지는 의류 수출이 1위였으나, '22년을 기점으로 전자기기 수출 증가
 - * 인쇄회로기판용 자외선 경화 장비, 전화기, 반도체 소자, 전선, 케이블 등
 -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가스, 대두, 원유 등 에너지 및 농산물

<인도네시아의 對미국 주요 교역 품목>
(단위: HS 2자리, 백만 달러)

순위	수출			순위	수입		
	품목	2023	2024		품목	2023	2024
	총계	23,251	26,313		총계	11,277	11,967
1	전자기기	3,456	4,181	1	광물연료	2,199	2,923
2	편물 의류	2,291	2,483	2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1,537	1,509
3	신발	1,920	2,393	3	유지종자 및 사료	1,267	1,255
4	직물 의류	2,065	2,122	4	식품 부산물 및 사료	719	652
5	동·식물성유지	1,947	1,784	5	전자기기	407	496

자료: GTA

제4장 한국 기업을 위한 기회 요인

제1절 보건 의료

□ (배경)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정부 중점 관심 분야

- (정부 관심 분야) 의료기기는 Making Indonesia 4.0의 중점 육성 분야로, 의료분야 정부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신정부의 핵심공약은 빈곤·질병 등 기초생활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건강수준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추진, 향후 정책적 수혜 예상
 - 의료분야 예산은 2022년 대비 2025년 약 63% 증가

<인도네시아 의료분야 예산>

(단위: 억 달러)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2	105	115	134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보건의료 관련 Quick Win Program>

(단위: 억 달러)

사업명	예산	주요 내용
결핵 퇴치 프로그램	5	전국적 결핵 근절을 위한 집중 대응
건강검진 프로그램	3	총 5,220만 명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시행
고품질 병원건설	1	지역 수준의 D급 병원을 C급 병원으로 업그레이드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성장가능성 高)** 의약품·의료기기 수요 확대 기반 조성

- **(시장규모)** 인니 의료기기 시장은 2028년까지 연 평균 9.7% 성장을 통해 6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Motor Intelligence)
- **(수요)** '24년 국민건강보험(Jaminan Kesehatan Nasional, JKN) 가입자가 전체 인구의 98%를 돌파하며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수요 증가
- **(정책)** 인니 정부는 옴니버스 법을 발표하고, 규정을 개정하여 의료 산업 관련 규제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환경 개선 도모

<주요 개정 사항>

조치사항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 확대	(이전) 비-ASEAN 투자자의 최대 지분 67%, ASEAN 투자자 75% (이후) 병원 부문에서 100% 외국 투자 허용
외국인 의사 면허 완화	외국인 의사는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기관에서 적응기간을 통과하면 규정상 진료 면허를 받을 수 있음 *기본 2년 동안 진료 가능, 최대 1회 연장
의료특구 지정 및 의료관광 추진	발리 사누르를 의료특구로 지정, 외국인 의료진을 위한 진료 허가 절차 간소화, 의료 장비에 대한 세관, 재정 지원

○ **(의료역량 제고 필요)** 성장 가능성에 비해, 내부적으로는 ▲전문 인력 부족, ▲수입 의존, ▲디지털화 지연 등으로 보건서비스의 질적·양적 한계 상존

- 인도네시아 인구 대비 의료인력 및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
 - * '23년 인니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는 0.16명, 일반의 수는 0.69명으로, WHO에서 권장하는 전문의 수인 인구 1000명당 0.28명, 일반의 수는 1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의료분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의약품 원료수입이 90%이며, 의료 장비 거래 수입 또한 88%에 달함(인니 보건부, 2023)
- 전체 의료시설의 80%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지 못한 상태로, 의료 데이터에 대한 관리 미비

- (수혜분야) High-Tech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피부미용 클리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 (High-Tech 기기) 인니에서 자체 조달이 어려운 High-Tech 기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요 확대 추세
 - 현지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은 주로 장갑, 붕대, 멸균기, 휠체어와 같은 기본품목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음
 - 반면 호흡기기, 촬영장치, 영상진단기기 및 인공관절 분야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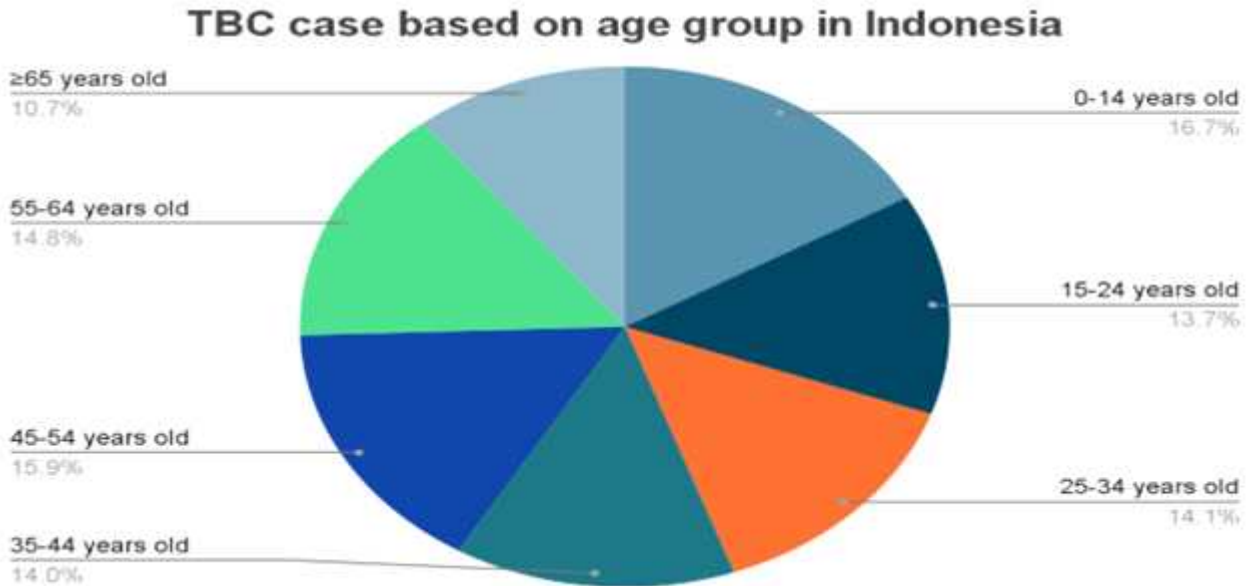
<인니 對한국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HS Code	품목명	2022년	2024년
9018	의료용 기기류	42,459	42,927
9019	호흡기기	1,314	2,004
9020	마취기기	3,082	1,488
9021	정형외과·보철기기	3,999	5,690
9022	방사선 진단·치료장비	4,663	7,152

자료: GTA

- (원격진료서비스) ▲인니의 지리적 특성, ▲의료 인프라 부족의 한계가 부각되며, 이에 대한 보완 수단으로서의 원격진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인니는 도서 지역과 농촌 인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면 진료에 대한 지리적 제약이 구조적으로 존재함. 원격진료는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작용
 - 영상진단 기반의 대량 판독 시스템은 결핵 등 조기 스크리닝이 중요한 질환에 대해 인력·장비 부족으로 인한 진단 공백을 보완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 '23년 인도네시아는 인도에 이어 세계 2위의 결핵 발생국으로, 전 연령층이 위협에 노출된 가운데 약 82만 건의 사례가 보고됨(2023 글로벌 결핵 보고서)

<인도네시아 연령대별 결핵 발생 분포>
(단위: %)



자료: 인니 보건부 질병예방통제국

<원격진료 분야 진출 사례>

- ◆ 헬스허브는 현지 합작법인을 통해 의료 영상 원격판독센터를 구축하고 원격판독 서비스를 제공
- ◆ 딥노이드는 인니 가자마다(Gadjah Mada) 의과대학병원과 MOU를 체결, 폐질환·뇌질환 진단보조 AI 솔루션의 임상 연구 추진 중
- ◆ 솔닥은 실로암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비대면 진료 및 AI 원격의료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며 현지 시장에 진출

- **(피부미용 의료기기)** 인니에서 한류에 대한 인기 확산과 함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피부미용에 시장 확대 추세
 - '22년 인도네시아 미용의료 시장규모는 약 2.3억 달러, '28년까지 연평균 11.5% 성장하여 '28년 4.5억 달러로 성장 전망(Arizton)

- K-뷰티 확산과 함께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성형·피부과 등 뷰티 의료기술이 인니에서 주목받고 있음

* 인니는 K-뷰티 경험률이 조사 대상 28개국 중 태국에 이어 2위이며, SNS 영상/사진을 기반으로 20대 소비 비중이 높음('25 해외한류실태조사)

<인도네시아 K-뷰티 경험률 및 접촉 경로>



K-뷰티 경험률

K-뷰티 접촉 경로

자료: '25 해외한류실태조사

-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3040세대 점유율은 43%에 달하며, 20대의 K-뷰티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시장 확대 전망

<피부미용기기 진출 사례>

- ◆ 메디톡스의 히알루론산 필러 아띠에르는 인니 보건당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하여 인니 시장에 진출('24.7)
- ◆ 원택은 고주파 리프팅 기기로 인니 보건당국의 의료기기 사용 인증을 획득('25.6)

□ (진출전략) 정부사업, 현지 파트너십 강화 및 실수요자 적극 공략

○ (정부사업활용) 정부지원 상담회/전시회 및 공모사업 통해 현지 유력 파트너 발굴 기회로 활용

- 정부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 의료기기 전시회 및 상담회를 활용하여 인지도 확보 및 바이어 접점 확대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상담회>



2025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



K-메드텍 학술세미나

<2025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

행사명	2025 한-인도네시아 메디컬 로드쇼
장소	자카르타 인터콘티넨탈 호텔
한국 참가	기업관계자 약 30명
인도네시아 참가	인도네시아 바이어 약 60명
주요 프로그램	1:1 수출 상담회

- 공모사업은 민간 기업이 현지 공공 의료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정부사업을 활용한 진출 사례>

◆ 제이엘케이(KEI)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닥터앤서(Doctor Answer) 공모사업에 선발되어, 의료 AI 정밀 진단 솔루션의 해외 진출을 지원받음. NIPA, 인니 보건부, 실로암 병원, PT 카인드커뮤니케이션 등 4자 협의체 구성 후, 실로암병원에 뇌출혈(JLK-ICH)·뇌동맥류(JLK-UIA) 진단 AI 솔루션 납품 및 스냅피(Snappy) 앱을 통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 추진

○ (현지 파트너십 강화)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과 사업 역량을 합작법인에 이식하고, 현지 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 기회를 발굴

-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 단순 수출이 아닌 현지 파트너십을 통한 구조적 진출 전략이 요구됨

* '26년부터 전 의약품 및 일부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이 의무화 되며, 공공조달 시 적용되는 국산부품사용요건(TKDN) 기준이 25%에서 40%로 상향 조정되는 추세

<의료기기 관련 주요 비관세 장벽>



할랄 인증



TKDN



보건부 등록 절차 (ALK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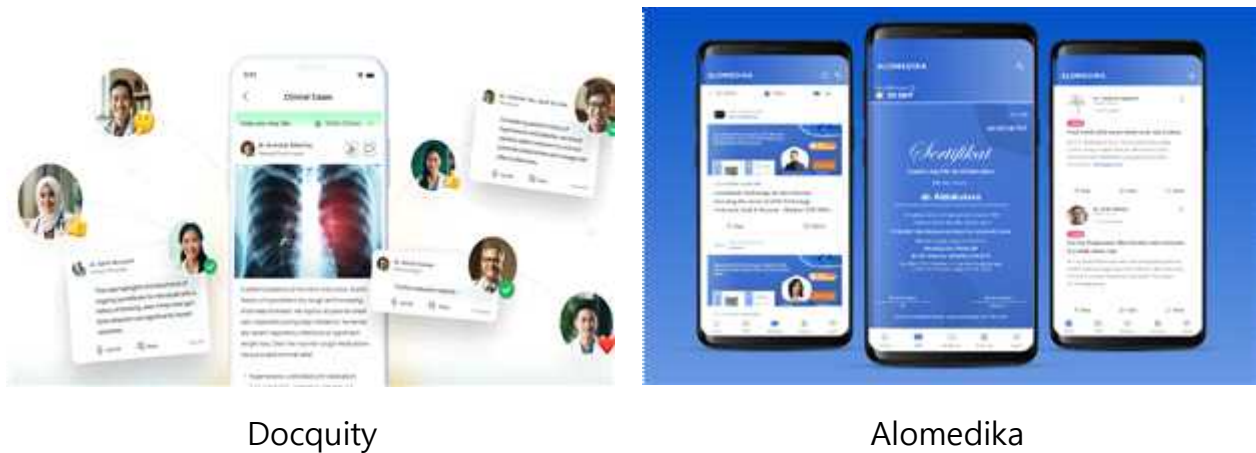
- 로컬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등 협업을 통한 기술 협력, 인증 공동 대응, 현지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 협력

<진출 성공 사례>

- ◆ 대웅제약은 현지 제약사 인피온(Infion)과 합작해 수라바야 지역에 제약공장 준공. 의약품 할랄 인증을 획득 후 인니 빈혈치료제(EPO) 시장 점유율 1위 기록 중
- ◆ 제넥신은 인니 최대 제약사인 칼베 파마(Kalbe Farma)와 KG BIO라는 합작법인을 세우고 협업, 빈혈치료제 국제임상 및 최초 상업출시 성공
- ◆ 시지바이오는 인도네시아대학교 의공학연구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기 원료 개발부터 상업화까지 전주기 공동 연구를 수행 중임. 아울러 인턴십과 교육 과정을 통해 현지 인재가 연구·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술 협력과 인재 양성을 병행하고 있음

- **(실수요자공략)** 실수요자인 의사, 병원과의 네트워크 강화하여 진출 모색
 - 현지인 의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디스트리뷰터 발굴
 - * A사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동남아 의사 네트워크 플랫폼인 Docquity에 홍보,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계약 체결

<동남아 의사 네트워크 플랫폼>



Docquity

Alomedika

자료: 각 사 홈페이지

- 수술 시연·현장 체험·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기술력 및 사용 편의성 입증하며 실구매자 설득 기반 마련

<실수요자와의 네트워크 강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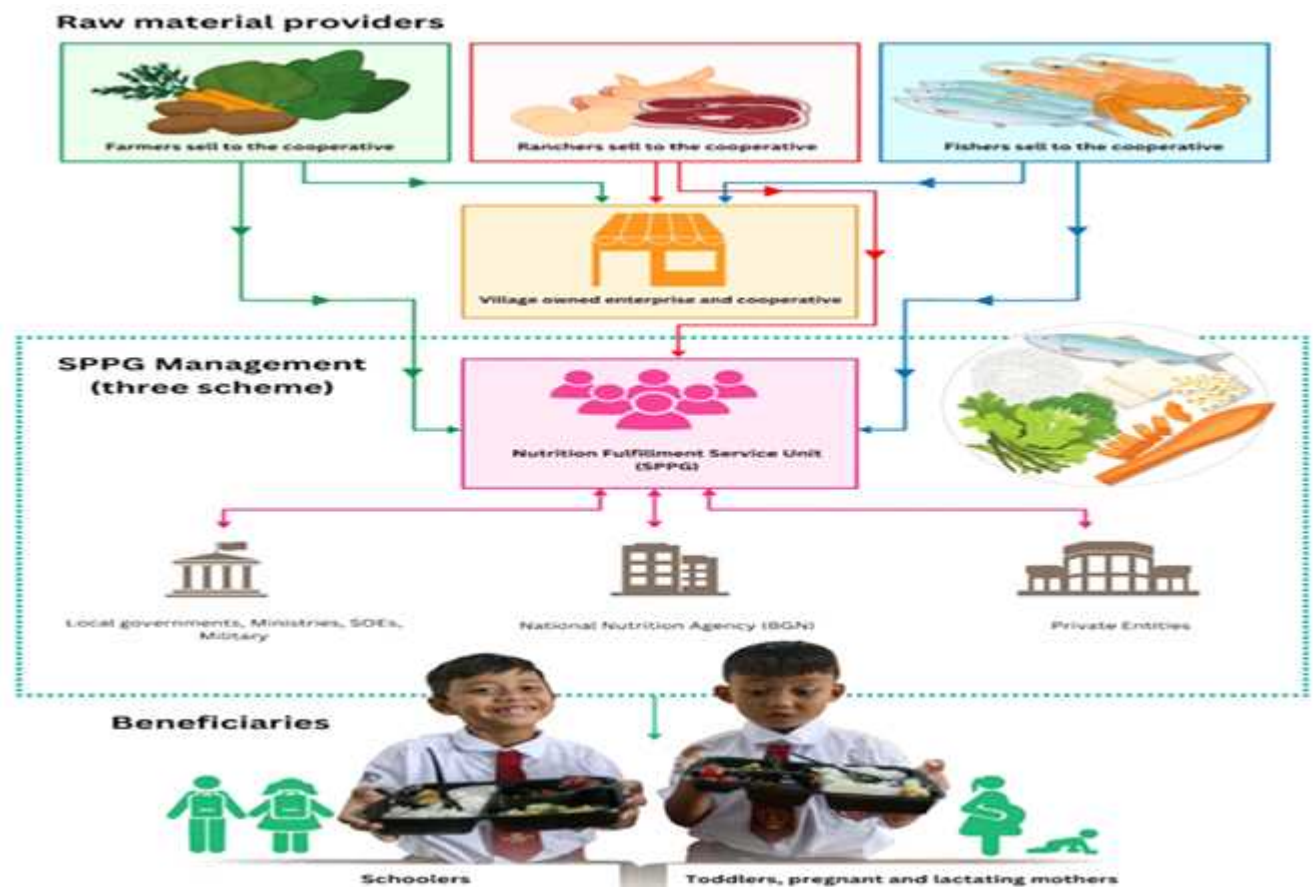
- ◆ 다인 메디컬그룹은 인니 국립대 의과대학병원(RSUI)와의 협력을 통해 역행성 신장내 수술(RIRS) 트레이닝 센터 건립 계약 체결. 다인메디컬 그룹은 단순 제품 유통에 그치지 않고, 주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및 시술 연계 활동을 통해 제품을 활용한 시술법까지도 의료진에게 체계적으로 전달
- ◆ 딥노이드,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의과대학 병원과 임상 연구를 위한 MOU 체결. 가자마자 의과대학병원은 딥노이드의 AI 솔루션을 활용한 임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사용 허가를 받아 진출 예정
- ◆ 디지털 덴티스트리 솔루션 기업 글라우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실제 임상 사례 기반의 강의와 구강 스캐너 실습을 병행하여 자사 제품 '저스트스캔'의 기술력과 사용 편의성을 현지 치과의사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제2절 농업 분야

□ (배경) 현지 협업수요가 높은 신정부 중점 관심 분야

- (정부 관심 분야) 신정부가 식량 자급자족,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며 농업시장 규모는 향후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신정부는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중요성을 감안, 식량 자급자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향후 정책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 신정부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8,20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 학생, 임산부를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대형 사업으로, 연간 약 16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

<무상급식 프로그램 체계도>



자료: 인도네시아 언론사(Kompas), 대통령실 인터뷰

- **(높은 성장 가능성)** 인도네시아는 쌀, 커피 등 주요 작물을 생산하는 세계적 농업국이나, 농업 기반은 여전히 열악해 향후 성장 여지가 큼
 - 인니 농업시장은 '23년 2,230억 달러에서 '28년 3,360억 달러로 연평균 8.5% 성장할 것으로 전망(유로 모니터)
 - 농업은 인니 전체 취업자의 28%가 종사하고 GDP의 12.4%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국가 경제와 고용, 국민 생활에 중요(인니 통계청)
 - ▲부족한 장비와 기술 ▲낮은 생산성 ▲품질 불균일성 등 한계를 안고 있으나, 이러한 제약이 개선될 경우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큼
- * 총 농지 면적은 약 5,380만 헥타르로 전체 면적의 29.8%를 차지하지만, 경작 가능한 농지의 비율은 약 9.5%에 불과하고, 농경지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세계은행)

<인도네시아 농업시장 규모>



자료: 인도네시아 언론사(Ruangguru),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편집

- **(높은 협업 수요)** 한류에 따른 K-푸드 관심 증가, 한국 과일 수요 확대 추세
 - 한류 콘텐츠의 영향으로 한국 식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프리미엄 이미지가 부각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추세
 - 한국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현지 유통업체가 지자체 및 생산자 단체와의 협업을 타진하거나 자체 판매 공간 설치, 수입 확대를 요청하는 등 협력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

<인니에 부는 한국 과일 열풍>



2025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



프리미엄 한국 신선 식품을 판매중인 매장

자료: 오마이뉴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한국 과일 수출 사례>

- ◆ 전남 담양군이 육성한 프리미엄 딸기 품종 '죽향'과 '메리퀸'이 1억 원 규모의 첫 로열티 계약을 통해 인도네시아 TSE그룹과 독점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도심형 식물공장을 통한 현지 재배 및 판매에 본격 진출
- ◆ 영천시가 경북 복숭아를 인도네시아 대형마트에 수출하며 첫 선적을 완료하고, 이를 계기로 포도 등 농특산물의 현지 유통망 확대 및 신시장 개척에 본격 착수
- ◆ 논산시는 인도네시아 대형 유통업체 트랜스마트와 협업해 박람회 이후에도 논산 딸기 특별 판매를 이어가며, 총 7톤 수출 계약 및 현지 완판 성과를 거두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딸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

- **(수혜분야)**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팜' 등 기술 기반 농업이 핵심 수혜 분야로 부상
 -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불안정 심화,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 수요 증가
 - 식량 안보 확보가 국가 과제로 부상하면서, 현대 농업기술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 '23년 엘니뇨로 인해 인니 쌀 생산량이 급감했으며, '24.3월까지 쌀 수입량이 180만 톤을 초과해 전년 동기 대비 400% 이상 증가(로이터)
 - 기술 기반 정밀농업은 생산 효율성 및 기후 대응력 강화에 효과적
 - 스마트팜은 센서, 자동화, 데이터 기반 관리 등을 통해 물·비료·노동력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수확량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정부·민간 주도의 디지털 농업 생태계 확대와 외국 기업 협력 여지 증가
 - 청년층 대상 애그리테크 창업 지원, 도시형 농장 확대, 스타트업 육성 등 디지털 농업 전환 정책이 활발히 추진 중

<정부 주도 애그리테크 장려 프로그램>



Youth Agripreneur Talk 웨비나



Youth Agripreneur festival 자료

자료: 인니 중소기업·협동조합부, 인니 농업부

- 인니 스마트팜 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로, 실증 사업 중심에서 본격적인 산업화로 전환 중
 - 인니 스마트팜은 아직 실증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주요국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시범 사업 중심으로 추진 중 (인도네시아 농업대학교)

- **(진출전략) 공동 R&D, 파일럿 실증, 제도 협력을 연계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기술 적합성과 진입 기반을 함께 확보**
 - **(공동 R&D) 현지 여건을 고려한 공동 R&D 및 기술 개발**
 - 현지 기후·토양·작물 여건을 반영한 공동 연구 및 기술 실증을 통해 기술 신뢰도 확보
 - 단순 기술 수출이 아닌, 현지 농업 시스템에 최적화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장기 협력 기반 마련
 - 아열대 맞춤형 재배 플랫폼 개발, 현지 농업 인력 대상 교육, 유지 보수·관리 역량 내재화 등 기술 이전과 현지화 전략을 병행하는 접근

사례 1: 케이에스팜 -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 스마트팜 기술 개발 협력

- ◆ 케이에스팜은 인니 남술라웨시주 산하 공기업 PT SCI 및 국내외 민간기업들과 스마트팜 원예기술 공동연구 및 현지화 모델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 이는 한국의 K-스마트팜 기술을 기반으로 현지 기후·작물 여건을 반영한 기술 개발, 연구센터 설립, 농업 교육 및 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며, 기술 수출을 넘어 지역 맞춤형 농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사례 2: 그린플러스 - 고온다습형 스마트온실 모델 공동 개발 및 수출 기반 구축

- ◆ 그린플러스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가 추진하는 '고온다습형 스마트온실 패키지 개발' 과제를 바탕으로, 인니 보고르농업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남아 기후에 적합한 스마트팜 모델 공동 개발을 추진 중
- ◆ 이를 통해 자재 내구성, 냉방 시스템, 경제성 등 기술요소를 현지 조건에 맞춰 설계·실증하며, 인도네시아 수출형 스마트팜의 R&D 기반 구축

- **(파일럿 사업)** 현지 환경 적응성과 기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 사업 실시
 - 스마트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후·토양 등 환경 차이로 인해 기술의 직접 적용이 어려워, 현지 맞춤형 실증 필요
 - * 인니는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로 한국 기술의 직도입이 어렵고, 현지화 과정 필수
 - ** 실증을 통해 기술 적합성, 생산성 개선 효과, 운영 효율성 등을 직접 검증 가능
 - 실증 기반 구축을 통해 제도 협력, 사업 확장, 현지 인식 개선 도모
 - * 실증 성공 사례는 향후 정책 연계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으로 이어짐

<현지 시범 사업 사례>

- ◆ 고트팜은 인도네시아 INSTIPER 농업대학과 협력해 AI 기반 스마트팜 시범 모델을 구축, 현지 맞춤형 기술 실증 및 지속가능 농업 생태계 조성 추진
- ◆ 솔트웨어는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사 PT 인틸랜드와 협력해 딸기 중심 스마트팜 사업을 전개, 정부 차원의 제도 지원을 기반으로 전국 확산 및 기술 보급 추진
- ◆ 드림팜은 인도네시아 수카부미군 공기업과 협력해 첨단 농업기술과 관광을 접목한 딸기 스마트팜 테마파크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국 간 지속가능 농업 협력 모델 구축 추진

<현지 실증 기반 스마트팜 협력 사례>



고트팜 INSTIPER MOU 체결



드림팜-수카부미군 MOU 체결 사진

자료: 마인그라운드, 드림팜

- **(제도협력)** 정부 간 협력 채널과 공공 파트너 연계를 통한 진출 확대
 - 한-인니 ODA 통합 정책협의회에서 농업·식량안보가 전략적 협력 의제로 지정되며, 스마트팜 기술도 중점 협력 분야로 부상
 - 한국 정부는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사업*을 통해 수출형 온실 모델을 개발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실증과 연계해 진출 기반을 구축 중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과기정통부 공동 추진 사업
 - 인니 정부는 국가혁신청(BRIN), 지방정부, 국립대 등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며, 양국 간 제도 협력 기반을 활용하면 단순 민간 협력보다 시장 진입 수월
 - * 단순 민간 협력 대비 인허가, 정책 연계 등 시장 진입 과정이 보다 용이

<양국 협력 모멘텀을 활용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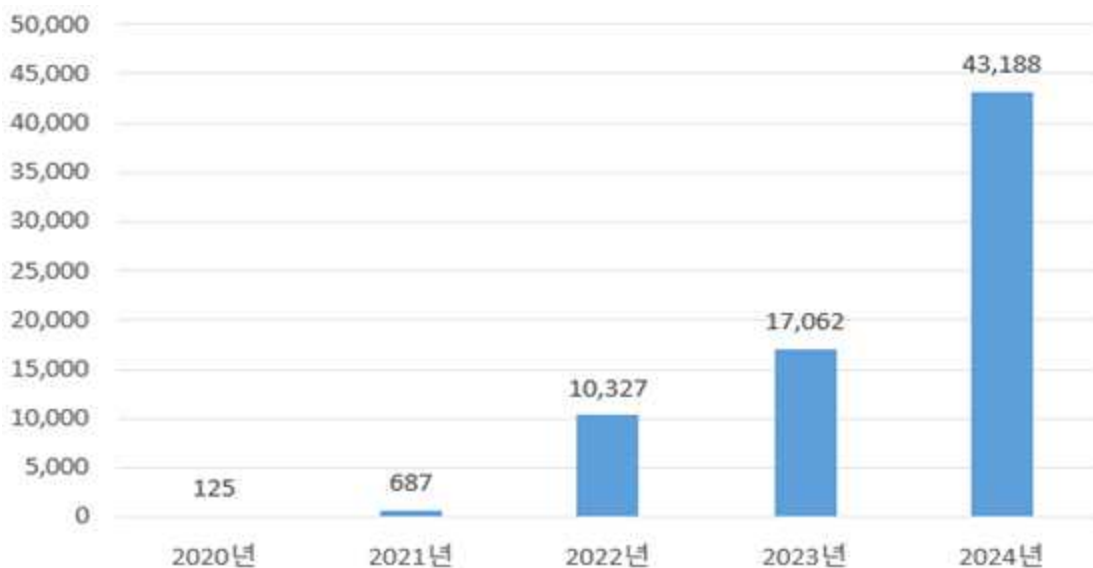
- ◆ 케이에스팜은 인도네시아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과 협력해 스마트팜 실증 모델을 추진 중이며, 부지 확보와 인허가 등에서 공공 협력의 이점을 확보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스마트팜 실증을 추진하며, 공공 협력을 바탕으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확보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인니 스마트팜 ODA 프로젝트를 시행, 인도네시아 청년농업인과 교관·교수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 스마트팜 시장 소개. 연수를 통해 스마트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 하는 기반 조성
- ◆ 경기 화성특례시, 아세안 5개국의 식량안보 분야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 한국 스마트팜 운영 선진 사례를 공유. 각 국 관계자들은 이러한 기술이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확인하며, 자국 내 도입 방안 논의

제3절 전기자동차(EV)

□ (배경) 높은 성장 가능성 및 한-인니 정부의 협력 강화 예상

- (성장가능성高) 전기차는 전동화율 초기 단계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음
 - '24년 전기자동차(사륵) 판매량은 4.3만 대로 전년 대비 153% 증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86만 대로, 전기차는 전체 판매량의 5% 수준
 - '24년 전기 이륵차 등록대수는 약 16만 대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등록 이륵차의 0.1% 수준에 불과
 - 인니 정부는 세계 1위 니켈 매장량과 거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아세안 전기차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추진
 - 정부는 '30년까지 자동차 판매량의 25%를 전기차로 전환 목표, '40년부터는 내연기관 이륵차 판매 금지 계획 발표, 향후 성장 유망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판매 동향>
(단위: 대)



자료: 인도네시아 자동차공업협회(Gaikindo)

- **(정부 간 협력 확대)** 한-인니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출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
 - '23.9월 한-인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 양해각서」체결
 - 후속 조치로서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연구 ▲정책 및 제도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
 - 한-인도네시아 e모빌리티 협력센터 개소, 양해각서 후속 조치 수행 중
 - EV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ODA 사업과 민간 협력사업이 결합된 전기자동차 패키지 추진 중

<양국 간 EV 협력 사례>



MOU 체결 사진



e모빌리티 센터 헌판식

자료: 대한민국 대통령실, 자동차연구원

- **(인니 정부 관심 분야)** 전기차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 자국 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정책 추진
 - 전기차 생산·판매·충전·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제도 정비 및 세제 인센티브 확대
 - 자원 수출 제한을 통해 부가가치 공정을 내재화하고, 전기차·배터리 등 다운스트림 산업의 현지 생산 기반 조성 추진

<전기차 및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인센티브>

- ◆ TKDN 40% 이상 충족한 전기차에 대해 '25년까지 부가가치세(VAT) 정부 지원 및 사치품세 면제
 - * 부가가치세(VAT) 11% 중 정부가 10% 부담
- ◆ '25년까지 투자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 CBU 전기차 수입관세 및 사치세 면제 인센티브 부여
 - * '27년까지 현지 생산 개시 의무 부과
- ◆ 노동집약적 투자(최대 60%) 및 R&D 투자(최대 300%)에 대해 소득공제(Super Deductible Tax) 제공
- ◆ 배터리·전기모터·EV 완성차 제조 분야에 최대 20년간 법인세 면제(Tax Holiday) 적용, 일정 조건 충족 시 세액 공제(Tax Allowance) 부여

□ (진출전략) 국가간 협력 모멘텀 활용, 현지 진출 및 소싱 추진

- (정부 지원사업 활용) 한-인니 정부간 협력 모멘텀으로 창출되는 기회 모색, 현지 시장 진출에 활용
 - 한국 정부는 해외실증·인증 지원을 위해 원스톱 현지실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지실증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
 -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인허가 정보 및 시장 진입 기반을 확보하고, 바이어 매칭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파트너와의 접점 확대
 - 한-인니 전기차협력 ODA 사업을 활용, 본 프로젝트 수주의 마중물로 활용

<정부 지원 사업 사례>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인니 전력청 산하 인증기관의 시험소로 지정되어 현장 대응 지원
- ◆ KOTRA: 한-인니 EV-e-모빌리티 협력 상담회 개최, 비즈니스 협력 상담회 및 현장 시찰

- **(현지 진출/소싱) 강화되는 규제 고려, 현지에서 원자재 소싱 및 기술이전 통한 진출 고려**
 - **(규제 강화)** 정부는 E-Mobility 종류에 따라 국산부품사용요건(TKDN) 부과, 점차 강화되는 구조
 -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 부품은 일정 수준의 TKDN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 가능
 - 로컬 바이어들은 가격이 비슷하다면 TKDN을 충족한 현지 생산 부품 구매를 우선 고려하는 추세

<종류별 TKDN 적용기간 및 최소 비중>

종류	기간 및 최소 비중
이륜 및 삼륜 전기차	2019 ~ 26년 : 40%
	2027 ~ 29년 : 60%
	~ 2030년 : 80%
사륜 이상 전기차	2019 ~ 21년 : 35%
	2022 ~ 26년 : 40%
	2027 ~ 29년 : 60%
	~ 2030년 : 80%

자료: 2023년 대통령령 제79호(Perpres No.79 2023)

- 전기차에(이륜, 삼륜, 사륜 이상) 적용되는 TKDN의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 표와 같음

<기간별 전기차 TKDN 가중치>

구분	2020 ~ 2029년	~ 2030년
주요부품	50%	60%
보조부품	10%	10%
조립(Assembly)	30%	20%
개발(RnD)	10%	10%

자료: 2023년 산업부장관령 제 28호

- 단독 투자보다는 현지 부품사와의 기술협력을 시작으로 협업 또는 완성차 계열사 대상 위탁 생산 거점이 효율적
- 현지 생산 확대는 물류비 절감, 수입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 비용 구조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
- 인니 내 조립·가공을 통해 완제품 형태로 재수출 시, 아세안 FTA 등 역내 무역 특혜 활용 검토
- 중국계 전기차 브랜드의 인니 시장 확대 흐름에 맞춰, TKDN을 충족하는 국내 부품사의 현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계 OEM과의 전략적 공급 협력 가능성 또한 검토해볼 수 있음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진출 사례>

- ◆ 경신, 다르마 그룹과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인니 와이어링 하네스 시장 진출
 - 경신은 인도네시아 자동차 부품 기업 다르마그룹과 합작법인(Dharma Kyunshin Indonesia(DKI))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와이어링 하네스 생산 시작
 - 설립된 합작법인은 인도네시아 현대차에 와이어링 하네스를 공급, 이는 현대차가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내 부품 현지화(Localization) 전략과 맞물려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
 - 향후 현대차 외 일본계·중국계 완성차업체로 납품처를 다변화할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음
- ◆ 인팩, Dharma Controlcable Indonesia과 기술협력을 통해 가속시, 변속기, 주차 브레이크, 제어 케이블 현지 생산

제5장 결론 및 제언

□ 프라보워 신정부 정책 분석 결과

- 신정부가 조코위 前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별화된 어젠다를 병행 추진하는 양상
 - 다운스트림 육성, 제조업 육성이라는 핵심적인 산업정책을 유지하면서 복지 확대와 자립 기반 구축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우선순위로 부상
 - 인프라 예산 조정되고 국가전략프로젝트(PSN) 과제가 축소되는 등 조코위 정부와는 다른 정책적 무게중심이 나타남

<신정부 핵심 정책 요약>

구분	핵심 정책
1. 산업 정책	⇒ 계 속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및 고도화 계 속 Making Indonesia 4.0
2. 무역·투자 정책	⇒ 계 속 가 속 화 수출 주도 성장 신 규 국부펀드 다난타라를 통한 투자 유치
3. 사회정책	⇒ 신 규 무상급식을 비롯한 Quick Win Program 신 규 공공 주택 300만 채 공급 프로젝트
4. 경제안보 정책	⇒ 신 규 식량 자급자족 이니셔티브 신 규 에너지 자급자족 이니셔티브
5. 친환경 정책	⇒ 계 속 가 속 화 친환경 산업 육성 계 속 가 속 화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
6. 인프라 정책	⇒ 축 소 대형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축 소 신수도 이전

□ 우리 기업을 위한 제언

<주요 진출 전략>

1. 정책 수혜산업 분석

- 신정부 중점 육성 정책에서 파생되는 신규 수요 타겟
- 주요 정책 과제 연계 솔루션 제공을 통한 수요 선점

2. 정부 간 협력 모멘텀 활용

- 양국 간 중점 협력 분야 진출 추진
- 정부 사업 활용, 현지 네트워크 발굴 및 제품 인지도 제고

3. 현지 진출 및 소싱

- 현지 파트너십 강화, 로컬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활용
- 장기적으로 현지 시장 진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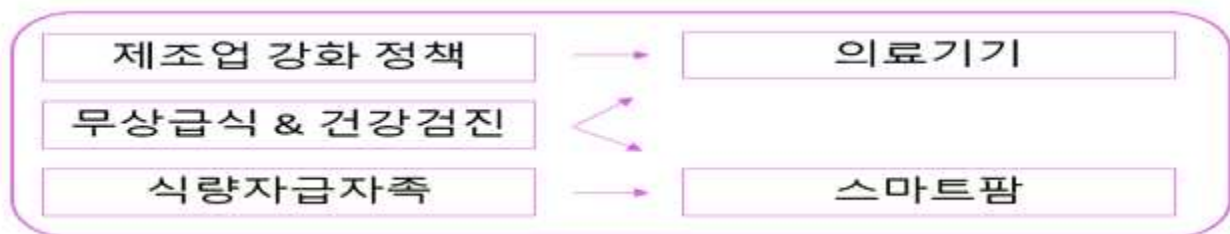
4. 현지 수요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 주요 소비계층(젊은 인구층, 이슬람 문화) 맞춤형 홍보 강화
- 현지 여건 및 환경을 고려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 신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산업 분석

- 신정부가 강조하는 핵심 정책(제조업 강화, 무상급식, 식량 자급자족)에 속한 산업이 향후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
 - * 정부 예산 효율화 조치를 통해 핵심 복지 산업 위주로 예산 재편성
- 주요 정책에서 파생되는 수요를 분석하여 유망 진출 분야 도출 필요

<주요 정책 분석을 통한 유망 분야 도출(예시)>



- 향후 정책 전망 시 정부의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고려 필요
- 정부별 정책의 우선순위는 상이할 수 있으나, 장기 비전이라는 구조적 연속성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정부 간 협력 모멘텀 활용

- 양국 간 중점 협력 분야를 기반으로 진출 분야 및 제품 전략 설정
- 한-인니 정부 간 협력 사업을 활용해 현지 바이어 네트워크 확보 및 제품 인지도 제고

- ◆ 한-인니 ODA 통합 정책 협의회를 통해 농업·식량안보 등 분야가 양국 중점 협력 의제로 지정
- ◆ '23.9월 한-인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 양해각서」 체결. 후속 조치로 한-인니 모빌리티 협력센터 설치하여 전기차 정비 교육과 현지 운영 실증, 기업 바이어 미팅 지원 등 양해각서에서 도출된 세부 협력 사업 수행中

○ 현지 진출 및 소싱 고려

- 인니 정부의 현지 생산 장려 기조에 따라,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진출 및 기술 이전 등 장기적 관점의 전략 검토 필요
- 강화되는 국산부품사용요건(TKDN)을 고려한 원자재 현지 소싱, 기술 이전 확대
- 인니를 생산 거점 확보하고 추후 ASEAN 역내 수출 거점으로서의 확장성 또한 전략적으로 검토 가능

○ 현지 수요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 시범사업을 통해 현지 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 효과성을 검증 필요
- 실증 결과와 현지 반응을 기반으로 고객군을 세분화하고 타겟 수요층의 니즈 정밀 분석
- 분석된 수요에 맞춰 제품 사양 조정 및 실 수요자 중심의 전주기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작 성 자

- 자카르타 무역관 정윤재
- 자카르타 무역관 Arindra Fauzan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기업의 기회

Global Market Report 25-023

발행일	2025년 7월
발행인	강경성
발행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13
전화	1600-7119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자카르타무역관(+62-21-574-1522)

• ISBN: 979-11-402-1383-2 (95320)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